

이덕일의 '역사의 창'



대명천지 대일천지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운운하는 말이 있다. 밝은 해가 뜬 환한 세상을 뜻하는 말로 알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명(明)자’는 ‘밝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 명(明:1368-1644)나라를 뜻한다. 그 의미는 “위대한 명나라가 지배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할 때 이 말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조선의 송명(崇禎)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매년 청에 사신을 보내는 ‘대명천지(大清天地)’에 살면서 ‘대명천지’에 산다고 생각한 정신승리가 만든 말이다.

대명천지의 어원은 자신은 조선 임금의 신하가 아니라 명나라 임금의 신하라고 자처했던 송시열에게 있다. 그는 임진왜란 때 군사를 지원한 명의 신종(神宗)과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의 사당을 집 근처에 지으려고 했다. 송시열은 명의 신하이자 조선의 신하가 아니라는 논리로 집 근처에 신종·의종을 제사하는 만동묘(萬東廟)를 세우려 했으나 조선 왕실에 눈치가 보여서 만동묘를 세우지는 못했다.

숙종은 송시열과 그의 당인 서인(노론)이 조선의 신하가 아니라 명의 신하를 자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남인가 여인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경종)를 원자(元子)로 책봉하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송시열을 사형시킨 것은 송시열과 노론의 이런 행

태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숙종은 다시 서인이가 여인 현왕후를 복위시키면서 희빈 장씨를 죽이고 자신의 당적을 서인(노론)으로 자정(自定: 스스로 정함)했다. 그래서 송시열의 제자 권상하가 송시열의 유언을 받자해 숙종 43년(1717) 송시열의 집 근처인 정주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우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숙종 자신이 명나라의 신하임을 자인한 셈이니 만동묘는 조선 임금보다 높은 권위를 차지했고 만동묘를 관장하는 화양동 서원은 법 위의 존재가 되었다. 화양동 서원에서 각 고을에 이른바 ‘화양목패(華陽墨牌)’를 보내 돈을 요구하면 지방 수령들도 거부할 수 없었고, 화양동 서원에서 백성들에게 사형(私刑)을 가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송시열을 숭상하는 노론이 화양계곡 절벽에 ‘대명천지(大明天地) 송정일월(崇禎日月)’이라는 글자를 새긴 것이 이른바 ‘대명천지’의 어원이었다. 송정은 사실상 명 의종의 연호인데, 조선은 영원한 의종의 제후국이라는 뜻이었다. 노론은 심지어 조상들의 비문에까지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고 써서 명나라의 신하로 자처했다.

서인(노론) 사대주의의 목적은 대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권 장악에 있었다. 사대를 명분으로 국내의 정치와 언론을 억압했다. 명을 끝까지 섬길 것 같은

노론은 일본이 부상하자 바로 말을 바꿔 타고 친일로 전향했다.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이고, 일제로부터 나라 팔아먹은 댓가로 작위와 돈을 받은 76명의 조선 벼슬아치 중 대다수가 노론인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해방 후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다시 친일세력들을 중용하면서 이들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주류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도가 심한 집단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이병도·신석호를 태두로 삼긴 역사학계다. 이들은 서론에서는 “식민사학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속인 후 본론과 결론에서는 여지없이 식민사학을 반복하는 것으로 조선총독부 한국사관을 대한민국의 ‘정설’이자 ‘통설’로 만들었다.

노론이 이미 망한 명나라를 섬기는 ‘대명천지’를 산 것처럼 이들은 열도로 쫓겨 간 일본을 섬기는 ‘대일천지(大日天地)’를 살았다. 국고 47억 원을 들인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독도를 끝내 삭제한 것이나, 가야사를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전북 남원을 아마토와의 식민지 기문국으로, 경남 합천을 임나 7국의 하나인 다라국으로 명기한 것이나, 전라도를 고대부터 아마토왕인들의 식민지로 서술한 ‘전라도천년사’ 등의 문제는 ‘대일천지’를 살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붓을 잡을 경우 나타나는 반복적 행태에 불과한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박재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병원장

설, 명절후유증 없이 보내려면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평소 식사량을 고려해 지나친 과식을 주의하고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며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명절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절이러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의 소화 능력이 저하돼 소화 시간이 길어져 자칫 위 식도 역류를 유발할 수 있고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라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설에는 떡국을 비롯해 전, 고기, 잡채 등 기름진 음식에 식혜, 과일, 한과 등 주전부리도 다량 섭취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들은 대부분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평소 식사량대로 음식을 먹더라도 급격한 체중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과식으로 설사, 구토 등 급성 소화기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만일 이런 위장 질환으로 설사와 구토가 계속된다면 깨끗한 물 또는 이온음료를 충분히 마셔 탈수 증상을 막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해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은 명절 음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칼로리가 높은 것은 물론 달거나 기름지고 짠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과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병자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사

과, 맥, 떡과 같은 간식 섭취량도 신경 쓰는 것이 좋고, 고혈압 환자는 소금기가 많은 찌개나 국물 요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명절 소화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식은 금물이다. 성인의 권장 칼로리는 남성 2500kcal, 여성은 2000kcal 정도이다. 고칼로리 음식이 많은 명절에 권장 칼로리 내에서 식사하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평소 식사량을 크게 넘지 않게 조절 해야 한다.

또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라면 기름 사용을 줄이고 굵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고 찌는 등 조리 방법을 달리 해보는 것도 좋다.

설 연휴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복병은 바로 식중독이다. 명절 음식 특성상 한 번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하고 이를 두고두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은 설 연휴 특성 상 식중독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노로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해 영하의 기온에도 생존하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의 주 원인이 된다.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설 음식을 조리한 후 2시간 이내 밀봉, 냉장보관을 해야 하며 조리나 식사 전후 손 씻기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설 연휴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기본이다.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각 시도 콜센터(120) 또는 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이용하면 연휴에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社說

총선 경선 레이스 시작, 설 민심 잘 살피야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은 정당 지지율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로 설 명절 연휴는 민심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정당들이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정당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국에서 31명을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광주에선 동남갑·북구갑·북구를 등 3개 지역구를 2인 대결로 확정했고 나머지 지역구는 설 연휴 지나 발표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 하위 20%도 설 연휴가 지나 공개하면 후보자들의 운곽이 점차 드러나게 된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29명의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이어 광주-전남 일부 지역구에는 복수 후보가 경합하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이 준연동형제로 사

실상 결정되면서 제3지구 신당 등 군소 정당들도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한 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설 연휴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릴 계획이다. 옛날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총선을 두 달 앞둔 तरा 지역내 여론은 어떤 형태로든 상호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민심과 이반된 선거 전략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선에서부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경선이 곧 당선인 호남이란 특성을 감안해 지도부의 입김보다는 유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영리한 방식으로 권력이 환교에 몰리는 것을 심판해 왔다.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가 예전만 못하고 후보들도 경선만 통과하면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당 지도부만 쳐다보는 행보를 해왔다. 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전략적 선택이란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권 의대 설립 외면한 정권 확충 아쉽다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잇그제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전남지역 국립 의대 설립'을 외면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는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정원의 경우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살펴 대학별로 배정하되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전남도 등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밝히면서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 의대 졸업자들을 지역

에 거주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밀렸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지역 병원들은 매년 의사 구인난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일을 감수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수입이 많고 근무 환경이 편한 분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안이 아직 의사단체 등과 협의를 거친 부분이 남아있고, 지자체들 역시 국립 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을 염원하는 여론을 최종안에 반영하길 바란다.

無等鼓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순천 낙안읍성 옆에는 고즈넉히 자리잡은 박물관이 하나 있다. 순천시가 운영하는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이다.

잡지 '뿌리깊은 나무'를 발행했던 고(故)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유물과 발간 잡지, 단행본 등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옥 '수오당'과 불상, 석탑 등 200여기의 석물이 전시된 석물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다.

'옹비어전'에서 이 틈을 파은 잡지 '뿌리깊은 나무'(1976년 창간)는 한국잡지사(社)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초로 한글 전

고택을 지난 2006년 그대로 박물관으로 옮겨온 '수오당' 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로컬 100'을 선정했다.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획으로 '로컬 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캠페인 '로컬 100 보러 로컬로 가요'도 함께 추진중이다. 유인촌 장관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캠페인은 지난해

통영, 밀양, 강릉에서 진행됐으며 지난 7월에는 수원에서 열렸다.

우리 지역에서는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을 비롯해 신안 퍼플섬, 죽녹원 등을 아우르는 담양의 3대 명품숲이 '로컬 100'에 뽑혔다. 이벤트로는 광주 축역의 종차축제와 버스킹 월드즈, 남구 인문학 축제 굿모닝 앙림, 동구의 대인시장 남도달밤 야시장, 북구의 비엔날레 미디어 파사드가 선정됐다. 로컬의 힘은 지역민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먼저 자주 찾고, 홍보대사가 되는 건 어렵가. /김미은 여론매체부장mekim@

기 고

이 그리움을 어찌할꼬?

다. 구두닥이, 공돌이, 감시와 감독 등의 험한 말과 함께 자기도 학교 다니고 싶다고 아버지과 다투던 앞집 형을, 미성, 시다, 작부, 다방 등의 생소한 말과 함께 절대 울라가지 않겠다고 어머니께 울며 매달리는 이웃집 누나의 하소연을.

눈부신 가난, 이촌향도의 단편, 고살은 뒷집 아랫집 세배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은 그렇게 울고도 다음 날 아침 씩씩하게 웃으며 서울로 향했다.

그런 골목이 지금, 조용하다 못해 고독하다. 짝 단편대문, 쓸쓸한 골목, 외로운 마을. 이제 그런 설은 오지 않을 것이다. 말이 설이지 박물관에서조차 찾기 어렵게 설은 겨우 명칭으로만 남았다. 그 빈 곳을 여행이나 휴식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다. 가난이 이토록 배가 불러서 그리워질 줄 몰랐다. 그 호호불 아래 어둠이 이토록 빛나게 보고싶을 줄 몰랐다. 고살 가득 메웠던 여자아이들의 줄넘기 소리, 개구쟁이들의 까르르 웃던 소리, 그 초라한 설빔 한 벌, 해우 가루 들어간 떡국 한 그릇, 다 닦아버린 팽이, 해지고 찢어진 딱지 한 장... 거기엔 정이 있었고, 사람의 입김이 있었으며 그리고 꿈과 정춘이 있었다.

지금처럼 고향을 아무 때나 오가던 시절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향 하면 울컥울컥 눈물이 나왔을 테다. 객지에서 고향 까마귀만 보아도 반가웠을 텐데, 고향 말을 쓰는 사람이면 그 얼마나 반가웠으랴. 묻지도 않고 흥금을 터놓고 살았었다. 타향에서 고향 사람은 형이요 누나이자 곧 자기 자신이었다.

훗날 그들도 각기 결혼했다. 그런데 참 특이 했다. 신랑 신부 고향이 같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고향이라는 끈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단단히 묶어주었던 것이다. 고향은 그랬다. 부모와 가족이었고, 피였으며 신앙이었던 때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따라올었다.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그리운 이도 없었던 그 날이었지만 그들의 눈물을 통해 그리움이란 것을 어렵게 배웠던 것 같다.

반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내일이 설날이다. 그때 그 이산가족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것처럼 누군가를 끌어안고 영영 울고 싶다. 그런데 붙잡을 그 누군가가 없다.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하고, 마을은 아기 울음소리 맞은 지 오래다. 명절이라고 이젠 새삼 찾아올 사람도 없고, 떠난 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보고 싶고, 설고 아리다.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는 이웃집 순희, 이불을 싸 들고 버스에서 내리던 미숙이, 그 누나를 좋아해서 같이 야반도주한 만포 형님, 그 동생 덕길이. 그리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마을 어르신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설이 그리운 건 사람이 그림이고 인정이 그림다는 말이다. 한번 간 그들은 왜 영영 돌아오지 않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답도 없다. 왜 없는 사람이 더 그리고, 떠난 사람이 더 보고 싶은 건지 알 수도 없고, 명절 탓하기도 그렇다.

이 그리움을 어찌할꼬? 영영 없어지지 않을 이 사무친 잡것을...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내일부터 설 연휴다. 캔스레 시선이 창밖으로 향한다. 이때쯤이면 흙먼지 날리며 시골 버스가 포플러 사이를 굽어굽이 돌아올 것 같고, 저 멀리 기적소리나 뱃고동 소리도 요란할 것 같다.

설 전날이면 우리 신자로 가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멈추면, 서울이고 부산 어디론가 떠났던 형과 누나들이 커다란 보따리를 한 아름씩 들고 내렸다. 번쩍번쩍한 구두, 멋진 선글라스, 상냥한 서울말, 나도 어서 커서 서울 가서 돈 벌어오겠다며 부러워했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밤새, 서울 자랑을 했다. 우리 신기한 건물, 내운사인, 동물원, 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촌놈이라고 깔보아도 아무 말 못했다.

설은 그렇게 그리운 사람과 함께 왔다. 도회지에 사는 친척들도 왔다. 백부와 숙부도 와서 사랑방은 사람으로 가득 찼고 웃음으로 넘쳐났다. 부엌도 마천가지였다.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았는지 집안은 여기저기 음식 잔치보다 온통 말 잔치, 이야기 잔치, 웃음 잔치였다. 그날 밤, 잠을 깨 소변보러 가는 마당에서 나는 들었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張必洙</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 황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